

당기고 있으며 倭船上의 兵士들은 칼과 槍을 휘두르고 있다. 倭船의 戰旗는 切斷되어 海上으로 떨어져 있고 있는데 當時의 戰記에서 볼 수 있는 「直衝, 焚蕩」을 寸前에 둔 狀況이 이러한 것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또 倭船이 大船인 것으로 보아 「上設層樓, 外垂紅羅帳」한 이른바 「層閣大船」인지도 모르겠으나 그림의 描寫는 大體的인 形局을 나타냈을뿐 그와 같은 細部는 分明히 하지 않았다.

作者는 알 수 없으나 當代의 彼我戰船을 目擊한 사람일 것이고 或은 海戰을 經驗한 畫員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點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當代 彼我戰船의 大體的인 形狀과 海戰의 樣相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忠武 洗兵館에 傳來되어오는 四十餘點의 懸板中에는 대개 한 사람의 畫員名이 들어 있으나 이 海戰當時의 統制使이던 李慶濬幕下에는 畫員名이 없는게 이상하다.

作者는 알 수 없으나 筆致는 매우 纖細巧緻하고 動搖하는 雲圍氣가 自然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에 參戰한 禹壽, 李暹, 李奇男, 李希參, 杜起文 等 諸將은 李慶濬이 再赴任한 萬曆三十九年(光海三·一六一)까지도 그대로 남아 服務하고 있었음을 前記 懸板에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海戰은 李統制使의 初任 다음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歷代統制使錄)

下半部の 墨書人名錄은 다음과 같다.

甲辰六月唐浦前洋勝捷之圖

嘉義大夫兼忠清全羅慶尙三道水軍統制使行慶尙右道水軍節度使 李慶濬得源辛酉 本韓山 居京 ○嘉善大夫行慶尙右道水軍虞侯 申汝樑重任甲子 本高靈 居興陽 ○折衝將軍行忠清道水軍虞侯 宋安廷正卿甲寅 本洪州 居京 ○折衝將軍行蛇疫鎮水軍節制使 禹壽仁 甲子 本禮安 居巨濟 ○折衝將軍行彌助項鎮水軍節制使 暹大明丙寅 本全義 居京 ○折衝將軍行多慶浦萬戶 申孫子美 辛未 本平山 居京 ○折衝將軍茂長別將 李奇男 大胤癸丑 本光州 居順天 ○禦侮將軍行臨瀆鎮水軍節制使 宋德駟致遠丙寅 本南陽 居興陽 ○禦侮將軍行於蘭浦萬戶 林英立 士雄丙寅 本鎮川 居鎮川 ○禦侮

將軍行平山萬戶 孟反會孝伯丙寅 本新昌 居蔚山 ○保功將軍行舒川浦萬戶 趙滄洗源壬申 本平壤 居京 ○振威將軍行唐浦萬戶 李希參而會丙辰 本全義 居京 ○振威將軍行永登浦萬戶 杜起文詩彥辛未 本萬頃 居萬頃 ○昭義將軍行木浦萬戶 尹琦汝溫辛未 本海南 居海南 ○定畧將軍行安興梁萬戶 李命吉天錫己巳 本泰安 居安山 ○定畧將軍行南樞浦萬戶 魯鴻汝信辛酉 本咸平 居京 ○顯信校尉守唐浦萬戶 盧毅男士剛甲戌 本交河 居水原 ○敦勇校尉守蛇梁萬戶 鄭昕景明戊寅 本鷄林 居京 ○進勇校尉守品島萬戶 魯認公識丙寅 本咸平 居羅州 ○秉節校尉守會寧浦萬戶 李希春景純壬戌 本報恩 居海南 ○禦侮將軍行加背梁權官 金一介汝臣壬戌 本金海 居蔚山 ○禦侮將軍行所非浦權官 朴藝茂仲丁巳 本 居京 ○宣畧將軍行栗浦權官 金大寬彥弘丙寅 本慶州 居新寧 ○秉節校尉行梨津權官 李自證登之甲寅 本慶州 居京 ○昭威將軍行疲知島權官 朴瑋 本全州 居 ○秉節校尉金甲島假將李光春 本 居康津 ○通訓大夫前瓮津縣令韓山代將 尹興龍仲遇丁未 本坡平 居大興 ○承訓郎前長城縣監洪州代將 孫應虎景文庚申 本密陽 居唐津 尾

資 料

慶州 瞻星臺 實測調查

洪 思 俊

一九六三年 一月 洪思俊館長(當時 慶州博物館館長)指揮下에 瞻星臺의 實測이 이루어졌던 바 여기 洪館長이 作成한 調查 全文을 실어 後日의 參考를 期한다.

國寶第三一號 慶州瞻星臺 實測調查

客年 十二月下旬에서 今年 一月三十一日까지 瞻星臺 實測作業과 實測 圖面 및 復元圖 作成에 많은 日字와 多數人員이 動員되었다. 冬期 晝間이 짧고 더우기 連日 繼續되는 寒波와 暴風은 作業에 多大한 支障을 주

었으나 新羅 千有餘年 前의 遺物을 詳細히 圖面化함은 學界에 研究資料와 將來에 不意의 事態를 防止함에 도움이 될 것으로 意料됨으로 意義가 깊다 보아진다.

아래에 實測狀況을 解說함에 際하여 實測에 鄭明鎬君과 實測及 作圖에 從事한 俞門龍, 金完永, 諸君의 工勞가 많았음을 謝하여 둔다.

一九六三, 一, 三二

解 說

瞻星臺는 新羅 第二十七代 善德女王代에 創建(三國遺事 別記之是王代 鍊石築瞻星臺)된 東洋最高의 天文觀象臺로 當時 國家의 安危, 國王의 安泰, 農耕에 風雨霜雪 等を 天體의 星辰을 觀察하여 判斷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 附近 古老들은 俗稱 比斗(北斗七星)에 다른 별을 比較한다는 뜻)라 하고 附近 部落을 比斗골 比斗거리(街)라 한다는 것이다.

一、瞻星臺 位置

慶州市 仁旺里 八三九의 一

瞻星臺上에서 四方을 보면 東十里許에 普門里 貯水池堤防이 보이며 南은 가까이는 鷄林과 月城北門(?)을 통해서 멀리 南山蟹目嶺이 바라 보인다. 西는 仙挑山과 멀리는 宋砂山峰이 보이며 北은 現慶州市 街가 眼下에 俯眺된다.

二、瞻星臺의 現況

瞻星臺를 基壇部、層段部及 上部井字石部로 區分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1、基壇部

石質은 눈(目)이 가는 花崗石으로 方形臺座(大小十二個)를 地覆石(大小八個)이 받고 있으며 이 地覆石은 地表下에 2/3가 埋沒되었는데 普通 木枕大(木枕大)의 自然石을 괴었다. 特히 西側地覆石 傍에는 十一個 平面인 自然石이 一列로 羅列되어 있다. 推測에 四方을 그와같이 地覆石補強用의 地面石이 있었던 것이나 빠져 달아난 것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리고 南側 出入窓口下 地面에도 二個

平面石이 있고 이곳에서 다시 十m 地表에도 平面石이 있다. 이들 石材는 出入窓口로 通하는 사다리(梯子)를 놓기 爲한 돌들이 아닐가 思料된다.

2、層段部

總二十七段의 喇叭式 圓錐形層段石들은 第一段(下部)에서 九段까지는 強質의 火成岩으로 第十段에서 第二十七段까지는 花崗石으로 橫石이 되었다. 아마 下部層段은 風磨雨洗가 가장 많이 받는 곳임에서 그리 築造한 듯하다. 그리고 瞻星臺 外壁의 石材鍊磨度를 보면 十八段까지는(一段에서)荒削되고 一段마다 上下가 若干 內曲되어 中間이 부른 感을 주나 第十九段에서 第二十七段層石들은 石材鍊磨한게 垂直이면서 급게 다들어졌다. 瞻星臺의 立體는 西北側으로 中腹이 내밀면서 東北에 傾倒하였다. 瞻星臺앞으로 新道가 나가 前에는 그 後側바로 밑이 舊路였으므로 六・二五時 육종한 戰車가 通行한데서 더 많은 傾倒가 생겼다고 하며 下層石壇에 있어서 東西兩側面에 龜裂이甚한 것도 그 關係라 한다.

各石段의 一周圍石을 세어 보면 最少 九個石(第十九段)에서 最大 十八個石(第七段)으로 築造되었다. 第十二段窓口下(一段에서 十二段)橫石이 總一八二個石이며 第十三段以上이 一八十個 合計 橫周石 三六二個石이다. (以上 石數는 南窓口 兩柱와 內部井字石 第十九段 第二十段과 第二五段 및 二六段은 除外함)

瞻星臺 內部는 第十九段及 第二十段에 井字形長石이 놓였는데 東西兩長石이 外表까지 貫通해서 있으며 다시 第二五段의 二個長石이 南北으로 外表에 露出 다음의 第二六段 二個長石이 亦是 東西로 外表에 까지 貫通하여서 위에서 보면 井字形으로 보인다. 이 井字形 長石은 上部에 通하는 사다리를 걸친 곳으로 알겠다.

3、上部井字形石部

圓錐形의 瞻星臺 上部에는 正方形으로 四個長石이 上下二段으로 이루어졌다. 下段은 南과 北에 一石씩 두고 東과 西에 若干 작은 長石 머리를 받기 위하여 南北의 長石 兩端內側을 若干 과 맞추고 그

돌머리를 맞춘 上面에는 은장(穩裝)을 鐵로 끼었던듯 形跡이 있다. 그렇고 다음 上段井字形石들은 長石兩端을 相互 엮을리게 四隅가 上半式을 과서 平面을 이루었다. 이 最上部的 井字形石內 즉 第二七段 水平面과 같이 東側에 板石으로 內部를 깔았으며 西側에는 마루를 놓은듯 三箇石(第二七段石根)에 V字形으로 과져있다.

特히 第二五段 西側長石頭 兩端과 第二六段 北側長石頭 兩端에는 外表上面에서 中間에 안쪽으로 『刻하여 있고 內側은 가는 목을 人爲的으로 만들어 졌다. 石材運搬에 바줄을 감았던 것이 아닐까推定된다.

以上은 臆是臺를 實測함에 있어서 所見을 略述한 바이며 實測圖及 復元圖를 別添한다.

異型瓦當 二例

金正基

一、蓮花文異型瓦當(國博所藏)

忠南 靑陽郡 赤谷面 花山里에서 出土된 이 瓦當은 蓮花文 숫막새를 變形하여 만든 것이다. 즉 文樣은 比較的 隆起가 甚한 八瓣素文蓮花文으로 中央의 子房은 外周에 幅四mm 程度の 높은 띠를 둘러 그 속이 七顆의 珠房이 있다. 瓦當 둘레에는 周緣턱이 없어 一見 椽端瓦 같은 느낌이 든다. 이와 비슷한 文樣의 瓦當은 六四年 봄에 國博에서 施行된 扶餘郡 恩山面 琴谷里 寺址調査에서도 發見되었는 듯 記憶하나 아직 未整理하기에 確實하게 言及할 수가 없다.

이 瓦當의 奇異한 點은 그後面에 굽직한 圓筒形突起가 있는 점이다. 瓦當直徑이 約 一三cm인데 突起의 굽기는 七·五cm로 그 길이는 約 九·〇cm로 안이 비어 있다. 이 突起의 形態는 그다지 整齊된 것이 아니고 그外面엔 若干의 起伏이 있고 그 속의 孔部는 內部에 같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수류 줄아진다.

이 구멍은 이 突起를 만들때의 工作으로 생긴 것으로 어떤 機能을 가진 것은 아닌 듯하다.

二、雙龍文암막새 (梨大博所藏)

慶州 昌林寺址 出土라고 傳하는 이 瓦當은 火炎에 둘러 쌓인 寶珠를 가운데 두고 左右에 飛龍을 配置하여 餘白에 瑞雲을 날린 流麗한 手法으로 된 거의 完全한 瓦當이다.

이와 똑같은 文樣의 瓦當이 日本京都大刊「新羅古瓦の研究」에 收錄되어 있다. 역시 昌林寺出土로 밝혀 있는 것이다. 이 瓦當에는 그 下部에 역시 아름다운 忍冬唐草文이 附加되어 있다(圖版四四、五五).

梨大所藏의 瓦當이 異型이라 함은 그 암막새의 平瓦部分이 普通的 암막새와 같이 瓦當의 上端面에 附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下端部에 附着된 點이다. 그렇기에 이 瓦當의 下頤部에는 아무런 文樣이 없어 바로 平瓦의 밑바닥이 된다. 이렇게 암막새의 平瓦部가 막새의 下端部에 달린 것은 그다지 흔한 것은 아닌 듯 하나 역시 前記書의 本文二四頁插圖一六을 보면「慶州出土平瓦瓦當部斷面圖」라 하여 몇개의 瓦當斷面圖가 있으며 그 중 한개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